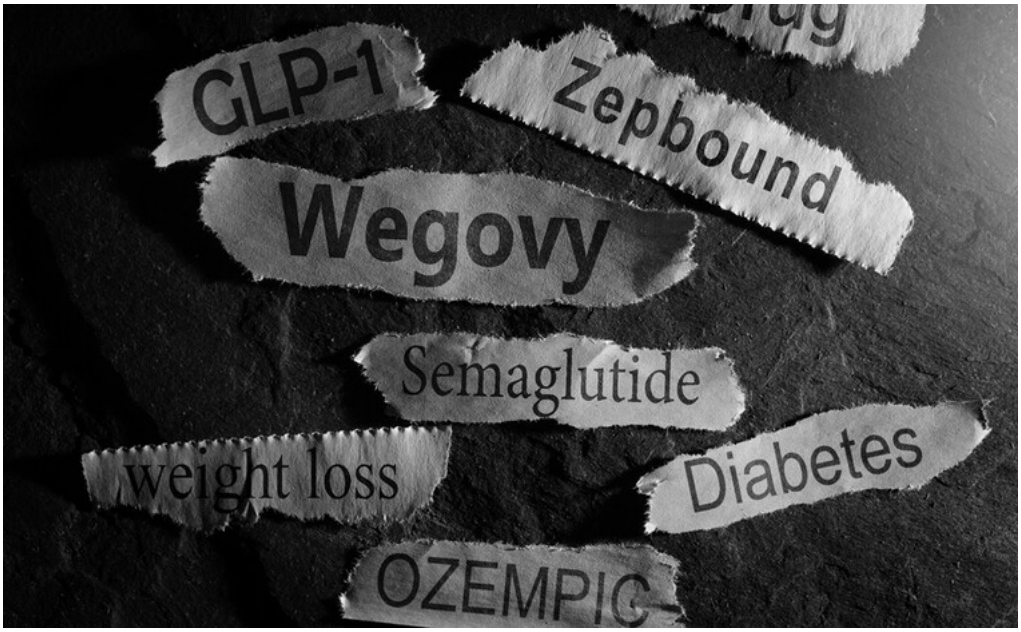
Issue

'위고비'가 몰고 온 글로벌 비만 치료제 열풍

입력 2024.12.12 14:30 | 2024년 12월호 |

조수완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만 치료제 시장도 확대일로다. 탁월한 체중감소 효과를 인정받은 노보노디스크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마침내 국내에 출시되며 국내 비만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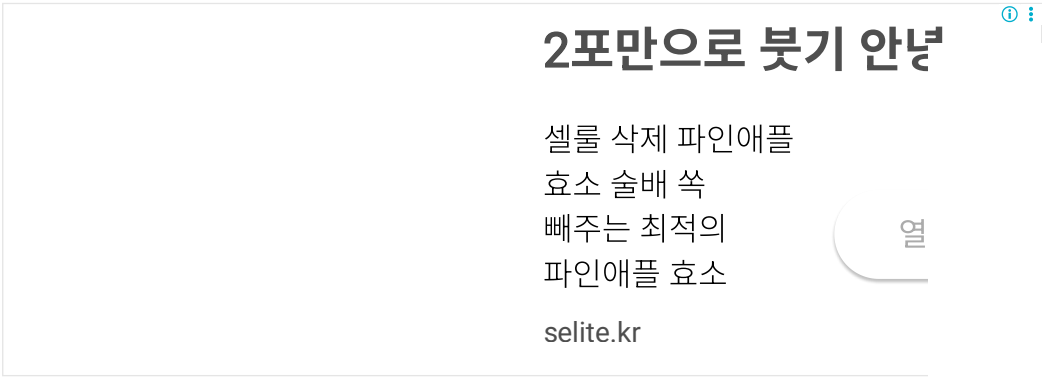
©shutterstock

비만 위기 시대, 비만 치료제가 게임체인저 될까?

최근 몇 년간 비만은 전 세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비만 인구는 10억 명 이상으로 1990년 이후 2배 넘게 증가했다. 비만은 단순히 미용적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질환, 당뇨병, 일부암 등 다양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대한비만학회가 발표한 '비만병 팩트 시트 2024'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2년에는 39.4%에 달했다.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비만 유병률이 증가했지만, 특히 남성 비만 유병률 급증이 두드러진다. 2013년 37.9%에서 2022년 49.6%로 크게 증가한 것. 이로써 현재 남성 두 명 중 한 명은 비만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만 치료제는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닌 급성장하는 의약품 시장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약물을 통한 비만 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 실제로 비만 치료제 산업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다른 산업에 비해 5배 이상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제약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기 않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위고비 국내 상륙! 삭센다 신드롬 이어갈까?

사실 비만 치료제는 20여 년 전부터 꾸준히 개발되어 왔다. 199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최초의 비만 치료제 제니칼을 시작으로 디에타민, 콘트라브, 삭센다, 큐시미아 그리고 최근 나온 위고비까지 다양한 신약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한 계기는 다름 아닌 노보노디스크사의 '삭센다' 덕분이다.

삭센다는 2014년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후, 2018년 국내에 처음 출시되자마자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출시된 지 4개월 만에 품절 사태가 벌어졌고, 이후 입고될 때마다 빠르게 완판되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19년부터 5년 연속 최대 규모를 갱신 중이다. 실제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9년 1341억원으로 10년 만에 신기록을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1780억원으로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삭센다는 GLP-1 수용체 작용제로 허가받은 세계 최초 비만치료제다. GLP-1은 음식 섭취 시 장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포도당 농도에 따라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혈당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GLP-1은 활성 기간이 약 2분으로 짧고 쉽게 분해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추후 개발된 GLP-1 수용체 작용제는 구조를 변화시켜 반감기가 훨씬 길어진 만큼 당뇨나 비만 치료에 사용하게 되었다.

당초 당뇨병 치료제(빅토자)로 개발된 GLP-1 호르몬 작용제는 체중감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로 더 주목받고 있다. 뇌의 식욕 중추에 작용해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위장 운동을 저하시켜 음식 섭취를 줄이는 메커니즘이 주요 효과로 작용한다.

삭센다는 인체의 GLP-1과 동일한 기전으로 작용해 식욕억제와 체중감소를 유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폭발적 인기를 누렸다. 삭센다는 출시 직후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고, 작년 기준 국내 시장점유율 37.5%를 차지했다.

©shutterstock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드디어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었다. 위고비 역시 GLP-1 수용체 작용제로,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과 같은 성분을 사용하되 용량을 조절해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제품이다. 위고비 출시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현재 여러 제약·바이오 기업이 GLP-1 작용제를 활용한 비만치료제 개발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관련 시장의 가치는 급증하고 있다. 2030년까지 모건스탠리는 770억 달러(약 100조원), 골드만삭스는 1000억 달러(130조원)로 전망했다.

국내 제약사도 뛰어든 비만 치료제 시장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신약 개발 경쟁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기존 주사제를 넘어선 제형 변경 등을 통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도 줄을 잇는 상황. 최근 비만 치료제를 경구용이나 마이크로 니들 패치 제형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런 비만 치료제는 기존 주사제와 달리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직접 주사하는 번거로움과 통증을 줄여 복약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는 장점을 지녔다.

국내 제약사들이 이처럼 비만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배경에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효과 맹신은 위험, 오남용 주의해야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가운데 관련 학회들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체중감소 효과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만 치료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약물을 남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위고비 등 GLP-1 계열 약제는 명확한 의학적 필요가 있을 때만 처방해야 하고, 약물 오남용은 심66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 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젊은 청년층에서 미용 목적으로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방법으로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36세 여성이 의사의 처방 없이 지인에게서 위고비를 구입해 사용한 후 갑작스러운 상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췌장염 진단을 받았다. 연구진은 이 여성에게 급성췌장염이 발병한 원인으로 세마글루타이드를 지목했다.

삼성맑은의원 장아영 원장은 "위고비 부작용으로 담석증 및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칼시토닌이라는 갑상선 수질암의 종양표지자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관련 병력이 있는 경우 처방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경고했다. 위고비와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용량과 사용 방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shutterstock

위고비 vs 삭센다, 주요 차이점은?

위고비는 삭센다에 비해 효과적인 체중감소와 편리한 투여 방식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삼성맑은의원 장아영 원장에게 두 약물의 차이를 물었다.

Q. 위고비와 삭센다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위고비와 삭센다는 모두 GLP-1 계열의 약물이지만, 성분에 차이가 있다.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 삭센다는 리라글루타이드 성분을 사용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성분에 따른 치료의 편의성이다. 위고비의 반감기는 165시간으로, 삭센다(13~15시간)보다 훨씬 길어 주 1회 주사로 치료가 가능해졌다. 매일 1회 주사를 맞아야 했던 삭센다에 비해 치료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

Q. 위고비와 삭센다, 효과의 차이는?

위고비와 삭센다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위고비가 체중감소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8주간 과체중 또는 비만 성인에게 각각 위고비와 삭센다를 투여한 결과, 위고비는 평균 체중감소율이 -15.8%로, 삭센다(-6.4%)보다 월등히 좋은 효과를 보였다. 또 음식에 대한 욕구와 칼로리 섭취도 위고비를 투여한 그룹에서 더 효과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Q. 부작용에도 차이가 있나?

위고비와 삭센다 모두 위장관계 부작용이 가장 흔한 이상 반응으로 나타난다. 주로 구토,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비록 체중감량 효과는 위고비가 삭센다보다 좋지만 위장관계 부작용의 빈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 위고비 vs 삭센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 차이점

1. 금기 사항에서 갑상선 수질암이나 과거력, 다발성내분비종증이 빠짐

2. 임신 준비 전 최소 2개월 전 중단

3. 위고비는 소아청소년 사용 허가 무(無)

Q. 두 약물의 처방 기준은 동일한가?

위고비와 삭센다 모두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BMI≥30kg/m2)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고혈압, 당뇨병 전 단계 또는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으면서 초기 BMI 27 이상 30 미만(30kg/m2≥BMI≥27kg/m2)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전문의약품이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삭센다의 경우 만 12세 이상 소아 비만 치료에도 사용 가능하지만, 위고비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성인을 대상으로만 허가를 한 상태다. FDA에서는 소아 비만 치료에도 위고비가 허가되어 추후 우리나라에도 적응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삭센다 사용 중 위고비로 전환이 가능할까?

위고비 펜은 총 다섯 가지가 있으며, 용량별로 펜의 색상이 다르다. 각 펜은 주 1회 주기로 총 4회 주사할 수 있는 양으로 0.25mg부터 시작해 한 달 간격으로 증량해 유지 용량인 2.4mg에 도달하게 한다.

기존에 삭센다를 사용하던 환자가 위고비로 스위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현재는 삭센다 최고 용량인 3.0mg을 사용하던 환자가 위고비로 스위칭하려면 위고비 0.25mg부터 투여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증량하기를 권고한다.

Q. 위고비의 금기 사항은?

위고비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또는 첨가제 성분에 과민증(알레르기)이 있는 경우, 임신을 원하거나 임신한 경우, 수유부인 경우에는 투약을 금한다.

장아영 원장은…
삼성맑은의원 원장으로, 의사전문의 면허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어 다양한 질환을 동서의학적으로 폭넓게 이해하며 치료한다.

저작권자 © 덴 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수완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swch@mcircle.biz

다른기사 보기

#비만 #다이어트 #비만치료제 #위고비 #삭센다

인기기사

- 안전한 비행을 위한 패러글라이딩 필수 장비
- 편하게 달려도 몸이 바뀐다? '슬로 조깅'의 힘
- 일상을 여행처럼 요시고 사진전
- 로맨스부터 스릴러까지, '어맨다 사이프리드'라는 서사

초여름 풍경이 내려앉은 곳,
창덕궁을 걷는 시간

이번 호 보러가기 >

추천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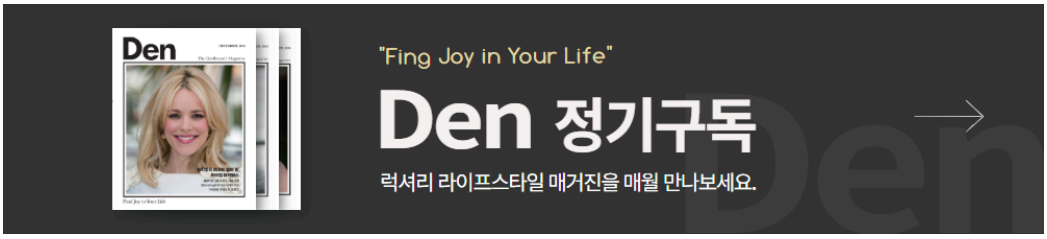
사진 편집부터 작곡까지,
크리에이터를 위한 AI 앱 5

퇴근이 빨라진다,
업무 도우미 AI 앱 5

Issue 최신기사

안전한 비행을 위한
패러글라이딩 필수 장비

초여름 풍경이 내려앉은 곳,
창덕궁을 걷는 시간



DEN(덴) | 발행일 : 2008년 09월 25일 | 전화번호 : 02-550-8723 | 대표이메일 : denmagazine@mcircle.biz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12, 6층 | 등록번호 : 강남 라 00335 | 등록일 : 2009년 4월 13일
발행인 : 서종원 | 편집인 : 이찬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찬란

Copyright © 2025 덴 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P